

코로나19 관련 당사의 주요 대응

열차에서는(겨울도 환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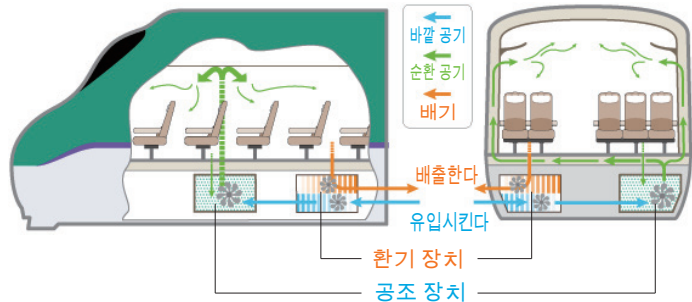
홋카이도 신칸센(H5계)의 열차 실내 공기 순환에

JR 홋카이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책으로서 열차 실내 환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신칸센의 경우 열차에 설치된 공조장치와 환기장치에 의해 약 6~8 분마다 실내 공기를 갈아주고 있습니다.



공기 순환 이미지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해 열차의 실내 밀폐성을 높였지만, 환기장치에 의해 상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 장치에서 순환시키는 공기의 일부를 환기 장치에서 갈아줌으로써 외기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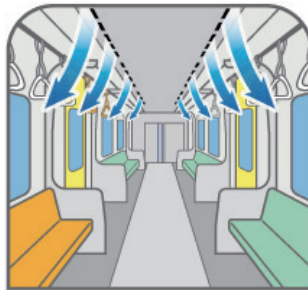


손잡이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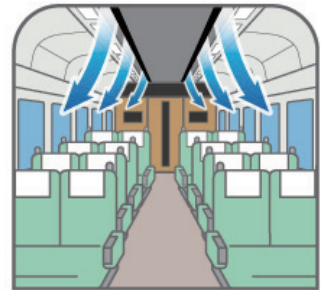


객실 내 연결문을 개방하여 실내 환기

공조설비에 의한 실내 환기



통근열차



특급열차

역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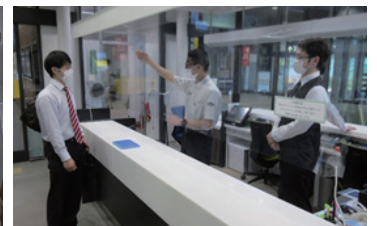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여 환기 강화



창구 대기시 서는 위치를 표시하여 거리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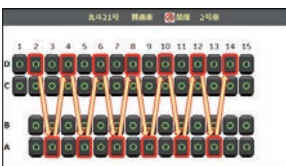
JR 티켓 카운터 (미도리노 마도구치)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여 비말 감염 방지



개찰 창구에 비닐 가림막을 설치하여 비말 감염 방지

지정석 발매 관련 대응(밀접접촉 방지 대책)

- 지정석 발매 시에는 승객이 한군데에 몰리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띄우면서 순서대로 좌석을 배정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담당 직원은 가능한 한 빈 좌석 상황을 확인한 후 다른 손님과의 좌석 간격을 띄워 지정석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 지정석 발매기에서 예약·구입 시에는 '좌석 배치도 기능'을 통해 고객이 직접 빈 좌석 상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 ※ 빈 좌석 상황은 발매 시점 기준이므로 승차 시에는 빈 좌석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석 발매기의 '좌석 배치도 기능' 화면 프로그램 이미지
(예) 2호차 2번 D석→2호차 3번 A석→
2호차 4번 D석. 지그재그로 발매.

차내개찰 관련 대응

- 지정석(1등(그린)차 포함)
 - 미리 발권된 '지정석'에 착석하신 승객님에 대해서는 티켓 확인을 생략합니다.
 - 그러나 차장이 지정석의 발매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티켓을 볼 수 있습니다. (티켓은 회수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확인합니다)
- 자유석
 - 티켓은 회수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확인합니다.
 - 단, '회수권 타입'의 티켓같은 일부 티켓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차장이 티켓에 스탬프를 찍어 드립니다.

※대상 열차: 홋카이도 신칸센을 제외한 차장이 승무하고 있는 전부 열차

이용객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말씀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

기침 예절도 명심합니다.



대화 자제

역이나 열차 안에서의 비말 감염을 방지합니다.



거리두기

역 창구 등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